



제146회 발명교실

5월11일 성공사례 등 발표

본회가 주최한 제 146회 발명교실이 지난 5월 11일 발명장려관 연구실에서 개최되었다. 매일 둘째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최 되는 발명교실은 이번에도 1백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발명교실에서는 에센시아(주) 대표 신충식 씨의 성공사례 발표와 이상호 변리사의 산업재산권 제도 해설 그리고 새생각회 강신목 회장의 발명의 발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발명가의 성공 사례를 간추려 소개한다. <이두성 記>

첫술 살균기 에센시아(주) 대표 신충식

‘세계화를 위하여 최고는 못될지언정 기초라도 튼튼히 다지자’라는 것이 저의 발명에 대한 신념입니다.

‘에센시아’
발명가 신씨의 신념을 잘 나타내고 있는 스페인 말이다. 영어에서 말하는 에센스(essence)와 같은 의미의 단어이다.
이 단어를 그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름으로 결정한 것은 ‘세계화를 위하여 최고는 못될지언정 기초라도 튼튼히 다지자’는 그의 발명에 대한 신념 때문이다.
발명가 신씨가 자외선 빛에너

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92년경 부터였다. 그당시 조명, 의류기구, 빛 소방기구등을 의뢰 받아 개발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던터라 가끔씩 접하게 되는 자외선은 그에게 많은 호기심을 안겨주었다.

단지, 호기심에서 출발했던 자외선 빛을 발명에 응용하고자 했던 것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되었다. 어느날인가 방문하게 된 친구집에서 친구의 아내가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첫술을 식기소독기에 넣어 소독





하는 것을 본 것이다.

그 길로 바로 집을 뛰쳐 나왔다. 그렇지 않아도 몇일전에 접했던 '가정용 칫솔의 세균학적 오염도 검사'라는 모대학교 교수의 논문에서 칫솔의 세균감염과 비위생적인 문제점을 접했던 그에게 식기소독기는 너무도 좋은 호재였다.

먼저 그는 칫솔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보니 그통은 밀폐된 공간인지라 오히려 세균의 번식을 도와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서둘러서 이번엔 전자식 모터팬을 장착하였다.

예상은 적중하였다. 모터팬이 수분건조와 습기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1차로 칫솔의 소독을 도와주었다. 그리고는 자외선 살균램프가 작동하여 세균을 완전

히 멸균시켜 주었다.

칫솔살균기의 기본 골격이 갖추어지긴 했으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먼저 칫솔살균기의 문을 방향에 관계없이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대칭 쌍기어를 장착하여 양방향으로 부드럽게 열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문이 열려 있을때는 멜로디가 울리게 함으로서 개폐상태를 확인하여 멸균상태를 유지토록 했다.

이렇게 성공한 그의 발명품은 혼자만이 자축해서는 안된다는 겸손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아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하였으나 국가공인 검정기관인 구강생물공학연구소의 시험결과 살균 성능이 99.9%에서 100%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그의 발명품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끊임없는 개발만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이나 남을 탓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사장은 자신이 먼저 본보기를 보인 것이다.

발명가 신씨는 '95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에 자신의 발명품을 출품하여 선을 보인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선정하는 영광도 얻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자외선 램프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연구를 계속 진행시키고 있으며, 모터 팬도 반영구적 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창 연구 중이다.

최고는 못되더라도 기본이나마 충실히 하자던 그의 신념은 어느덧 기본이 아니라 최고를 향하여 치닫고 있었다.

세계화의 초석을 쌓는데 최고부터 시작하지 않겠다는 겸손은 이제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발명계의 최고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두성 기>

발특9605